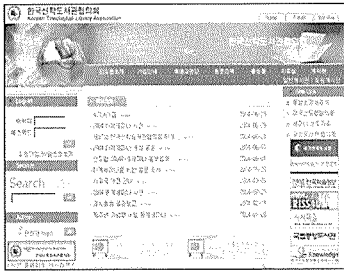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 강덕선\_사무국장



(<http://kta.or.kr>)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이하 "신도협", 회장 김희자 총신대학교 문헌정보처장)는 1973년 4월 16일 회원교 13개교를 중심으로 발족되었으며, 현재까지 회원교 53개교가 가입하여 32주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협의회 발족 이전에는 신학계 대학 사서들이 각자 도서관을 운영, 발전시켜왔으나 자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대학간의 협력과 표준화된 업무처리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던 중에 1972년 6월 1일 미국 남침례회신학교 도서관장 Dr. Leo Crismon의 한국 방문이 계기가 되어 전국의 신학도서관장과 사서들이 모여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 연합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하였다. 그후 5차에 걸친 준비 모임의 결과로 정관의 초안이 작성되고 협의회 명칭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로 정하여져 1973년 4월에 본 회가 창립된 것이다. 창립 이래 매년 2회 이상의 세미나와 7차에 걸친 석박사학위논문 CD-ROM제작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학계 도서관의 위상을 높였다. 그간 펼쳐온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출판사업

1. 《신학문헌정보》가 계간으로 출간되었는데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소식이나 논문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본 협의회의 실제적인 첫 출판물임.
2. 『D.D.C 18판 200대 번역대조판』 발간
3. 『한국 신학관계 석박사 학위논문목록』 발간 (1945-1977)
4. 『해외 석박사학위논문소장 목록집』 발간 (1996)
5. 전산, 전자 시대를 맞이하여 협의회는 책자출판을 중단하고 1996년 이후 전자출판(DB 제작)으로 전환
6. 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문 CD-ROM 제작
7. 해외 석박사학위논문 공동구입 및 상호이용
8. 회원교간 국내외 정간물 소장목록을 DB화하여 on-line으로 검색
9. 신학 e-book 제작

### ◆ 세미나

1. 1970년대에는 6회에 걸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실무자들이 사서로서의 기본지질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시기였음.
2. 1980년대에는 1년에 평균 2회씩 세미나가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 초반 도서관의 자동화 개념과 실례를 협의함으로 신도협 사서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주었음.
3. 1990년대에 역시 매년 2회의 세미나가 이루어지며 그 모든 주제가 "도서관 전산화"라는 것에 합일되어 인터넷, 공중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이용과 교류의 협력 실현에 힘썼음.
4. 2000년도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의 공유와 디지털정보의 생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6월에 실시한 제68회 하계세미나도 "디지털 환경과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어질 발전적 세미나를 기대함.

신도협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www.kta.or.kr](http://www.kta.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의 : 사무국장 강덕선, ☎ 02-3479-0280, 전송 : 02-537-0753, e-mail : [dkang@chongshin.ac.kr](mailto:dkang@chongshin.ac.kr), 주소 : (156-093)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산 31-3]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김예리\_간사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하 “책사회”)은 정보-지식의 기반 시설과 내용을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지식 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 돈 없는 시민도 원하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6월 2일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출범 당시에는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8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2003년에 어린이도서관연구회가 추가로 참여해서 현재 9개 단체가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34개에 이른다. 책사회는 책읽기의 문화를 넓고 깊게 발전시켜 책읽기의 문화에서 길러지는 윤리적 감각과 상상력과 정서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회, 깨어있는 사회, 성찰하는 사회, 시민이 기만 당하지 않는 사회, 아무도 시민을 바보로 만들 수 없는 사회, 시민의 판단력이 살아 숨쉬는 사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창립 이후 공공도서관 증설과 콘텐츠 확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와의 캠페인 전개, 시민들의 책 읽기 활동을 돕기 위한 포스터 제작(“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안성기, 조수미)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업은 2003년 문화방송 <느낌표>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7월 현재 개관 운영 중인 기적의 도서관은 6개관으로 순천, 제천, 진해, 제주, 서귀포, 청주이다. 이밖에도 7월말 울산 북구 도서관이 문을 열 예정이며 다른 몇몇 지역에서도 건립이 진행되는 중이다. 기적의 도서관은 건축과 운영부분에서 이전의 도서관과 큰 차별성을 갖는다. 1살짜리 꼬맹이도 보호자와 함께 도서관에 와서 맘 놓고 텅굴 수 있게 도서관 전체를 따뜻한 온돌마루로 깔아 우리나라 특성을 살린 것이 그 한 예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과 운영방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의 길을 터주고 가정과 도서관을 이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자녀양육의 책임과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주기 위해 북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입된다. 북스타트는 책사회가 전국 몇몇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대상의 독서문화 관련 복지사업이다.

현재 책사회 조직은 주관단체로 구성된 총회와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 그리고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사무처장과 3명의 간사가 일을 맡고 있다. 책사회의 대표는 주관단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상임대표는 도정일 경희대 영문과 교수이다.

책사회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평등한 정보-지식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지식의 격차와 접근기회의 불평등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초래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이 이러한 노력의 가장 중요한 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도서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라고 있다.



(<http://www.bookreader.or.kr>)

[문의 : 간사 김예리, ☎ 02-725-8784, 전승 : 02-725-8739, e-mail : read3@chol.com, 홈페이지 : <http://www.bookreader.or.kr>, 주소 :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64 선진빌딩 304호]